

문화관광분야 사업 적극 추진 익명의 천사, 임실군에 거액 기부

순창군, 올해 181억원 투입해 온라인 마케팅·관광콘텐츠 확대 등 주력

순창군이 올해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181억원을 투자해 코로나로 우울해진 군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등 코로나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반기부터 살아날 관광과 문화예술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뉴노멀로 자리잡은 비대면 문화도 적극 활용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문화공연을 실시간 라이브방송으로 새롭게 진행한다.

관내 관광지나 공원, 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공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NS나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마케팅에도 3억9,000만원을 투입해 관광도시 순창이라는 이미지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농특산물 판매효과를 톡톡히 봤던 군은 올해도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판매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영상공모전과 공식 유튜브 채널인 '순창튜브'를 활용해 숨은 관광지를 색다른 영상미로 연출해 집에서 도 순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순창군이 올해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181억원을 투자해 코로나로 우울해진 군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라이브커머스 홍보마케팅 모습)

추진한다.

지난해 순창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잡은 체계산 출렁다리로 관광효과를 봤던 순창군은 올해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과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콘텐츠 확대에도 노력한다.

오색단풍길 조성으로 순창읍부터 강천산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단풍길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강천산과 향기유원지는 남녀노소, 장애인 등 여행을 장애물 없이 누릴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업 48억원 ▲섬진강예술인마을 조성사업 6억원 ▲군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 8억1,000만원 ▲홀어머니산성정비 및 발굴조사,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2억5,000만원 ▲훈몽재 어업관 신축사업 등 10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관광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5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어려운 고향 주민 위해 3억708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임실군에 새해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익명 기부자가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삼계면이 고향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3억7,08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은 A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임실군에 거주하는 조순가정과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총 1,182세대에 1개월에서 5개월 동안 꾸준히 나누어 성금을 전해달라고 지정 기탁했다.

A씨의 기부금은 자녀가 1명인 경우는 20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40만원씩 5개월간 매달 입금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20만원을 한 번에 지원한다.

그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이 같은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성장하는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소득 가구,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순가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이다.

4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기부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을 극구 꺼려하며, 다만 고향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 전해왔다.

새해부터 소리 없이 찾아온 익명의 거액 기부자의 소식에 주민들은 "출향 인사가 고향을 위해 써달라며 4억원에 달하는 큰돈을 기부했다니 참으로 고맙고, 감동적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심민 군수도 "기부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놀랐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처럼 큰 액수의 기부를 해주셔서 임실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기부금은 기부자님의 뜻에 맞는 대상자들에게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인증 획득

순창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난해 HACCP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관내 가공품을 만들려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순창군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품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공 창업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협(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및 조리단계까지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HACCP인증을 받은 세가지 유형은 곡류가공품, 과채류, 잼 등으로 현재 무농약 현미누룽지, 순창 찐 찐한 블루베리, 참종은 순창딸기잼으로 품목제조신고도 완료한 상태다.

군은 이번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HACCP인증 취득에 따라 블루베리, 오디, 딸기, 현미, 쌀 등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곡류가공품, 과채류, 잼류 가공제품의 생산 안전성을 높여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HACC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강공사 실시와 HACCP인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추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 HACCP팀장교육 이수와 HACCP 관리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설태승 소장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곡류가공품, 과채류, 잼류 가공제품의 생산 안전성을 높여 관내 농가들이 가공품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전북농민공익수당 신청하세요"

2월 1일~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임실군은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

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받게 된다.

임실군은 지난해 5,320농가에게 지급했던 농민공익수당을 올해는 어가 및 양봉농가를 추가해 5,622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3억7,300만원 중 20억2,400만원(군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1,000㎡ 이상이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있는 양봉농가이어야 하며,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남원시보건소는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희귀질환 1,038개에서 1,110개로 72개 질환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이며, 보건소에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보건소(063-620-792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대상자 모집

남원시는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갈수록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젊은 농업 인력을 발굴해 교육, 컨설팅, 육성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에 기간 내 제출하면 되고, 청년후계농은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소방서, 구조·구급 통계분석 결과 발표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3일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구조·구급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의하면 2020년 남원소방서는 9,178건 구조·구급 출동을 했으며, 4,018명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였으며, 남원에서 발생한 구조·구급 출동 횟수는 구조 2,058건, 구급 7,120건으로 지난해보다 구조 2.4%, 구급 4.2% 증가했으며, 이송 인원은 구조 11.2%, 구급 6.7% 감소, 지난해 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증가한 반면 이송 인원은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동풍구조 및 코로나19 검체 이송 등으로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증가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경기 침체, 개학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야외활동 자제 등으로 활동량이 감소되어 이송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덕규 서장은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소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상수도 동파 예방·복구 총력

남원시는 올 겨울 동파예방 홍보 및 철저한 복구계획을 통해 한파로 인한 상수도 동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최근 최강 한파에 따른 동파를 대비하기 위해 홍보안내문 배포, SNS 등을 통한 동파 예방 행동요령 홍보, 매뉴얼 수립, 동파 취약지역 계량기 보존재 배부, 동파방지계량기 교체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한파경보가 발효된 7일부터 11일까지는 비상근무 2개조를 편성하고 대행업체 2개소를 지정해 동파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이번 기록적인 한파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량기 동파 12건, 수도관 동파 32건 총 동파사고 44건에 대한 복구를 신속하게 마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